

머리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집)는 의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에 관한 규정을 협의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의학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6년 3월 28일에 창립되었다. 2006년 7월부터는 중복출판, 표절, 저자되기 등의 연구출판윤리 문제가 의학계열에도 관심사로 대두되어, 의편집 내에 출판윤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출판윤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출판윤리위는 그동안 출판윤리에 관한 각종 홍보, 선언, 워크숍, 교육, 심포지엄, 학술지원 외에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2008년 01월 초판, 2013년 3월 2판 발행)과 <의학논문 중복출판 사례집> (2011년 8월)을 출판하여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중복출판의 연도별 추이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였다.

그 동안 각 학회, 대학, 기관, 개인들이 출판윤리에 관한 의문점이나 질문 사항을 의편집에 질의해 왔는데 최근까지 그 질문은 약 15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 질문 내용은 출판윤리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의 질문이 많았다. 의편집 출판윤리위에서는 그동안 접수되어 답신을 보낸 질의들을 모아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례를 소개하면, 실무적으로 학술지 발간 현장에서 출판윤리를 잘 이해하고 업무 개선을 이를 목적으로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Q&A 사례분석>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게 되었다. 이 내용은 현장 실무에서 의문이 생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매우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음집이 의학 학술지를 발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출판윤리의 이해와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파 이를 계기로 출판윤리가 더욱 확고히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3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 위원장 함 창 곡